

## 중년기 위기감(2) : 회고적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수준\*

김 애 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회고적인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 수준과 개방성향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발달통로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수준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고, 아울러 이러한 다양성을 매개한다고 가정되는 개방성향과 사회체제적인 요인의 역할을 유추해 보고자 했다. 응답자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 60세(1391명)의 중년층이었다. 분석결과, 청년기에 정체감 유예나 혼미상태에 있었다고 회고한 사람들이 성취나 유실상태에 있었다고 회고한 사람들보다 위기감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개방성향 수준은 유실이나 혼미상태보다 성취나 유예상태에 있었다고 회고한 사람들이 더 높았다. 즉 정체감 유예집단은 개방성향이 높은데도 위기감이 높고 유실집단은 개방성이 낮은데도 위기감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위기반응 양상은 중년기 위기 경험이 개방성향과 사회체제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인간의 발달과정은 '안정기'와 '전환기'의 순환 원리에 의해 진행되며 개인의 심리사회적 성장은 균형과 안정의 시기보다는 혼돈과 갈등, 불균형과 변화의 시기인 '전환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전환기중 성인기의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환기는 '청년의 전환기'와 '중년의 전환기'이다(Erikson, 1968; Levinson, 1978; Riegel, 1976). 일찌기 Erikson(1968)은 전생애를 8단계로 구분하고 다섯번째 단계인 청년기를 제2의 인생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로 '자아정체감의 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야기되는 시기라고 주장 했다. 이에 비해 Levinson(1978)

은 전생애를 4시대(era; 성인전기,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말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 사이에 3개의 큰 전환기(성인초기 전환기, 중년의 전환기, 성인후기 전환기)를, 그리고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의 중반에 '30대 전환기'와 '50대 전환기'를 설정하고 이중 '중년의 전환기'를 생애중 가장 의미 있는 발달적 위기라고 했다.

원래 중년기는 일찌기 Carl Jung(1954)이 성격발달의 정점이라고 주장한 이래 Jaques(1965), Gould(1978), Levinson(1978), Sheehy(1976), Vaillant(1977) 등에 의해 성인기 성격발달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발달적 위기라는 의미에

\* 이 논문은 김애순(1993)의 박사학위 논문(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윤진교수님의 지도로 쓰여진 것이다.

서 '중년기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중년기 위기'란 개인이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 삶의 의미와 자신의 '실체'(real life)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 절망, 침체감, 무기력감과 같은 정서적 혼란과 방황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성취정도,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가치들과 생의 우선권,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등 지나온 삶의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재조명을 해보는 현상이다. 이러한 위기감의 핵심에는 젊음이 사라져감을 애도하는 심정과 생명의 유한성(mortality)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하는 실존에 대한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청년기에 절정을 이루었던 정체감의 위기가 인생의 중반에 다시 심각하게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생애 중 개인의 심리사회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전환기의 위기감의 핵심에는 자아정체감의 위기가 내재하고 있다.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정신신체적 체계(psychophysical system)' 또는 '심리사회적 체계'내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신체적 특성, 욕구, 능력, 동기, 태도, 가치, 역할, 중요한 인물과의 동일시 등-을 개인의 고유한 방식에 의해 역동적으로 통합하여 자아(self)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기능을 하는 자아의 면들을 말한다.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어린시절 신체적 자아감에서 부터 시작되어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생 동안 확장, 발달되어 간다. 즉 어린시절에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인들을 개인의 고유한 방식에 의해 통합해가는 과정이 무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나 청년기에 이르면 자아정체감의 문제가 의식적인 수준으로 부각되며 심각한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맞게된다. 그 이유는 청년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 생리적, 인지적 성숙과 양가적인 사회적 요구때문이다(Allport, 1937; Kimmel, 1980; Rogers, 1961, 1963). 이러한

정체감의 위기는 일생을 통해 전환기마다 그 시기의 발달적 과제와 관련된 독특한 양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년기 위기는 청년기 이후 정체감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재현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Waterman, 1982; Whitbourne, 1986<sup>a</sup>, 1986<sup>b</sup>).

그러나 청년기와 중년기의 정체감 위기는 각 시기의 발달적 특징때문에 각기 다른 양상을 띠 수 있다. Baumeister 등(1985)은 정체감 위기를 정체감 결함(identity deficit)과 정체감 갈등(identity conflict)의 두가지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서봉연, 1988). 정체감 결함위기가 개인이 일관적인 선택 또는 결정을 하기위한 근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어딘가에 관여하고자하는 욕구나 갈망이 합쳐져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때, 정체감의 확립기인 청년기의 정체감 위기는 결함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체감 갈등위기는 상호 모순적인 다양한 자기개념, 다양한 관여로부터 오는 요구를 조화시킬 수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일치하게 행동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갈등이라고 할 때, 다양한 역할에 개입되어있는 중년기 위기는 정체감 갈등위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은 개인에게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 있는 독특성 뿐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자기동질성과 연속성을 유지시켜준다(이춘재 등, 1988). 따라서 이전의 발달상태와 이후의 발달은 연속된 발달과정으로 서로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청년기의 자아 정체감 발달상태와 중년기 위기감과는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속성이 개방성향(openness)이라는 성격적인 요인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Marcia(1966)는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를 개입과 위기의 차원에서 4가지 상태(정체감의 성취, 유예, 유실, 혼미)로 구분했는데, 이 4가

지 정체감 발달 상태가 개방성향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즉 정체감 성취상태는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인 성격특성과 상관이 있는 반면에, 정체감 유실상태는 개방성이 낮고 경직된 성격특성과 상관이 있다(Tesch & Cameron, 1985). 또한 Whitbourne(1986a, 1986b)은 Marcia의 4가지 정체감 발달상태를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도 도입한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odation)개념으로 대치해서 성년기의 정체감 발달과정을 연속된 적응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정체감 성취는 동화와 조절을 균형있게 사용하는, 정체감 유예는 동화와 조절사이에서 유동하는, 정체감 유실은 과도화를, 그리고 정체감 혼미는 과조절을 사용하는 적응과정으로 정서적 불균형은 과조절이나 과도화에 기인한다. 여기서 정체감 동화란 새로운 경험을 현재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정체감의 틀에 일치되게 해석하는 과정이며 정체감 조절이란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온 정보에 일치되게 자신의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즉 동화와 조절개념은 새로운 정보의 입력을 최대화 하거나 또는 최소화하는 개방성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Costa & McCrae, 1980). 따라서 정체감 성취가 적절한 개방성을 의미한다면 정체감 유실은 지나친 폐쇄성을, 정체감 혼미는 지나친 개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Rosenberg와 Farrell(1976)은 중년기 위기반응 역시 개방성향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중년기 위기반응을 개방-부정, 만족-불만족의 차원에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개방-만족, 개방-불만족 집단은 중년기 위기에 개방적으로 대처한 집단들로 개방-만족집단이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만족스럽고 위기수준이 낮은 집단이라면, 개방-불만족 집단은 위기반응이 개방적이기는하나 직업, 가족관계가 불만족스러워 위기수준이 높은 집단이다. 그러나 부정-만족, 부정-불만족 집단은 중년기 위기에 대해

억압, 투사등의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집단들로써 부정-만족 집단이 부정, 억압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위기감을 위장하는 집단이라면 부정-불만족 집단은 자신의 불만을 환경, 타인들에게 투사하므로써 높은 위기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다(김애순,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서 중년기 위기반응에 이르는 성년기의 성격발달 과정이 어떤 연속성이 있으며 이러한 연속성은 개방성향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년기에 정체감 성취나 유예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개방성향이 높은 사람들로 성년기동안 동화와 조절을 적절히 사용하므로써 중년기 위기반응이 개방적일 것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정체감 유실이나 혼미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개방성향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사람들로 성년기 동안 과도화나 과조절을 사용하므로써 중년기 위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년기의 발달과정은 개방성향이라는 단일한 차원보다는 이러한 성격적인 요인과 사회체계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이 더욱 유력하다(Cytrybaum 등, 1980). Rosenberg와 Farrell의 4가지 위기반응 양식에서 개방-불만족집단이 개방성이 높은데도 위기수준이 높고 부정-만족집단이 개방성이 낮은데도 위기수준이 낮은 이유는 중년기 위기반응이 이러한 개방성향과 사회체계적인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Marcia, Tesch와 Cameron, Whitbourne, Rosenberg와 Farrell등의 이론을 통합해서, 청년기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른 성년기 적응과정과 중년기 위기반응을 가정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회고적인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 수준과 개방성향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발달통로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수준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고,

표 1. Marcia, Whitbourne, Rosenberg와 Farrell 이론의 통합모형과 중년기 위기감

Marcia	Whitbourne	Rosenberg 등	중년기의 위기감
정체감 성취	동화 = 조절	개방 - 만족	위기감 수준 ↓
정체감 유예	동화 ≠ 조절	개방 - 불만족	위기감 수준 ↑
정체감 유실	동화 > 조절	부정 - 만족	위기감 수준 ↓(↑)
정체감 혼미	동화 < 조절	부정 - 불만족	위기감 수준 ↑

아울러 이러한 다양성을 매개한다고 가정되는 개방성향과 사회체제적인 요인의 역할을 유추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년기에 정체감 성취나 유예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체감 유실이나 정체감 혼미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개방성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중년기 위기감은 정체감 유예나 혼미집단이 성취나 유실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했는데 그 이유는 청년기에 정체감 유예나 혼미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청년기의 방황과 갈등이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사회체제내에서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불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 방법 및 절차

### 조사 대상자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35세-60세의 중년층 1391명(남자: 653명 여자: 738명)이 응답자로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4.55세(표준편차 5.09)이며, 첫자녀의 연령범위는 1세~37세, 막내자녀의 연령범위는 1세~30세 사이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41.9%, 대졸이 38.2%였으며, 경제수준은 월수입 100만원 이상이 76.8%였다.

### 표집과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을 위한 표집방법은 3단계 절차를 거

쳐 표집했다. 즉, 1단계에서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2단계에서는 강남과 강북에서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1개교씩 총 4개 학교를 표집했고 국민학교와 대학교는 전체에서 1개교씩 표집하였다. 3단계에서는 각 중, 고등학교에서는 1, 2, 3학년에서 4개 학급을 무선표집하고, 국민학교는 1, 2, 3학년에서 한 학급씩 3학급을, 그리고 대학교는 1~4학년 학생 100명을 무선표집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총 2000부(국민학교 300부, 중학교 800부, 고등학교 800부, 대학교 100부)의 질문지를 학생들을 통해 양 부모에게 배포한 후 응답된 질문지를 학생들을 통해 다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자의 자료(각 척도에서 5%이상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한 139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에는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본인, 자녀), 학력, 수입, 건강상태, 역할의 수, 직업, 결혼상태, 종교등을 묻는 배경자료가 첫 부분에, 그리고 중년기 위기감 척도(80 문항), 개방성 척도(48 문항), 자기검색척도(18 문항)의 3개 척도가 차례로 수록되었으며, 마지막 부분에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를 분류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 중년기 위기감 척도

김애순과 윤진(1991)이 제작한 중년기 위기감

척도를 본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재 요인분석한 결과, 최종으로 6개의 요인에 67문항이 선택되었다. 이들 6개의 요인은 정서적 위기감(22문항), 개별화 과정(14문항), 활력의 상실감(7문항), 직업 불만족도(10문항), 결혼 불만족도(10문항), 자녀관계(4문항)이다. 이 새로운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6이며, 각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alpha = .74 \sim .94$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김애순, 1993). 67개의 문항중 4개의 문항은 역으로 배점되었으며, 만점은 335점(67개 문항  $\times$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각 하위척도에 포함된 문항수가 달라 총점으로는 각 하위척도간의 위기감 수준을 비교할 수가 없으므로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이 결과분석에서 사용되었다.

### 개방성향 척도

Costa와 McCrae(1978)의 「개방성 척도」와 Snyder와 Gangestad의 「자기검색 척도」의 두 측정치가 사용되었다(김애순, 1993). 「개방성 척도(Openness)」는 ① 환상(Fantasy), ② 미적 정서(Esthetics), ③ 감정(Feeling), ④ 행동(Actions) ⑤ 사고방식(Ideas) ⑥ 가치(Values)의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에는 8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총 48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는 2분척도이다(예-아니오). 번역과정은 먼저 연구자가 번역하여 2인의 전문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 = .68$ 이었다. 48개의 문항중 23개 문항이 역으로 배점되었으며 만점은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성향이 높다고 평가된다. 「자기검색 척도(self-monitoring)」는 Snyder와 Gangestad(1986)의 척도를 이 주일(1988)이 번역하여 신뢰도( $\alpha = .82 \sim .78$ ) 산출과 문항분석절차를 통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18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는 이분척도인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alpha = .76$ 이었다. 18개의 문항중 10개의 문항이 역으로 배점되었으며 만점은 18점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두 개방성향 척도의 상관은  $r = .31$  ( $p < .001$ )이었다.

### 청소년기 정체감 발달상태에 대한 측정

성인들에게 20~30년전의 청년기 시절을 회상하도록 하는 회고적 응답을 요구할 경우, 많은 문항으로 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신뢰로운 응답을 얻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Marcia의 이론에 근거하여 청년기의 4가지 정체감 발달상태인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예,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상태를 보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4개 범주를 제시해주고 청년기의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주고 있는 어느 한 범주를 선택하도록 하여, 응답자들을 4개의 집단으로 분류했다.

### 분석 방법

자신들이 회고한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라 응답자들을 정체감 유예,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 등 네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4개 집단간에 중년기 위기감과 개방성향 수준에서의 집단간 평균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네개의 정체감 범주를 무의미 코딩하여 단순회귀분석함으로써  $R^2$ 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응답자들의 회고에 따라 분류된 정체감 유예,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실, 그리고 정체감 혼미의 4집단별 중년기 위기감과 개방성향 수준의 평균치와 단순상관자승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중년기 위기감 수준에서 4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 (남자:  $F_{3,601}=15.73, p<.01$ , 여자:  $F_{3,663}=22.80, p<.01$ ). 또한 개방성향 역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개방성:  $F_{3,1268}=11.03, p<.01$ , 자기검색:  $F_{3,1268}=3.13, p<.05$ ). 예컨대, 자신이 청년기에 정체감 유예나 혼미상태에 있었다고 회고한 사람들이 성취나 유실상태에 있었다고 회고한 사람보다 위기감 수준이 더 높으며, 특히 유예 집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개방성향 수준은 정체감 성취나 유예집단이 유실이나 혼미집단보다 더 높다. 일반적으로 개방성향이 높을수록 위기감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나 정체감 유예집단은 개방성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이 높으며, 정체감 유실집단은 개방성향이 낮음에도 위기감이 낮다. 이러한 양상은 Rosenberg와 Farrell이 중년기 위기반응을 개방-부정의 차원에서 4가지로 나누었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즉 정체감성취는 개방성이 높고 위기감이 낮은 개방-만족집단, 정체감유예는 개방성이 높으나 위기감이 높은 개방-불만족집단, 정체감유실은 개방성이 낮아 위기감이 방어적으로 위장된 부정-만족집단, 그리고 정체감혼미는 개방성도 낮고 위기감도 높은 부정-불만족 반응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위기가 보편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이전과 이후의 시기가 상호침투되어 있는 연속된 적응과정이며 개인의 발달통로(developmental path)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년기 위기반응이 개방성향이라는 단일한 차원보다는 이러한 성격적인 요인과 사회체계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정체감 성취나 유실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청년기에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성인기를 보내온 데 비해, 정체감 유예나 혼미집단은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를 확고하

표 2.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과 개방성향의 평균치(표준편차)와 단순상관상승치( $R^2$ )

정체감	사례수	정서적 위기감	활력의 상실감	개별화 과정	직업불 만족도	결혼불 만족도	자녀불 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개방성	자기 검색
								남자	여자	전체		
유예	321 (156)	3.15 (.7)	3.20 (.6)	3.54 (.5)	3.37 (.6)	2.59 (.7)	2.67 (.8)	3.05 (.5)	3.27 (.4)	3.16 (.5)	23 (.5)	6 (.3)
성취	377 (164)	2.59 (.7)	2.84 (.7)	3.25 (.6)	2.76 (.6)	2.19 (.7)	2.33 (.7)	2.66 (.5)	2.76 (.5)	2.70 (.5)	22 (.5)	6 (.3)
유실	367 (235)	2.78 (.7)	3.04 (.7)	3.26 (.6)	3.01 (.6)	2.33 (.7)	2.43 (.8)	2.78 (.5)	2.90 (.6)	2.86 (.5)	20 (.5)	5 (.3)
혼미	232 (125)	2.99 (.8)	3.16 (.8)	3.36 (.6)	3.19 (.7)	2.45 (.8)	2.54 (.7)	2.88 (.5)	3.12 (.6)	3.01 (.6)	21 (.5)	5 (.3)
$R^2$		.073**	.036**	.035**	.100**	.040**	.024**	.072**	.093**	.081**	.025**	.007*
$F$ 치		33.56	16.12	15.38	46.98	17.91	10.73	15.73	22.80	37.64	11.03	3.13

\*\* $p<.01$       \* $p<.05$       ( ) 안의 사례수는 여자임.      94명은 무응답자이었음.

게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기를 출발했기 때문에 청년기의 방황과 갈등이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체제내에서의 불안정감과 불만족감을 야기시키고 중년기 위기감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Erikson이 청년기를 “제 2의 인생을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한 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Rosenberg와 Farrell은 개방-불만족 집단을 ‘진정한 정체감 위기’집단, 부정-만족집단을 ‘억압된 우울’집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체감유실 집단의 위기감수준이 낮은 이유는 성취집단과는 달리 자신의 자유의지라기 보다는 타인들의 가치나 뜻에 따라 형성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내적인 갈등과 혼란이 있는데도 개방성향이 낮아 위기감이 방어적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정체감유실집단이 위기감수준이 높은 이유는 높은 개방성향으로 인하여 내적 탐색이나 자아성찰과 같은 진정한 정체감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후의 발달에 유익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이는 중년기 위기감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수 없으며 그 핵심에 내적인 탐색이나 자아성찰과 같은 개별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후 발달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현상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방성향과 사회체제적인 요인이 중년기 위기의 해결과정에 미치는 역동적인 상호관계는 추후 연구에서 더욱 명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제한점 및 연구과제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및 교육적 수준이 매우 높은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기 정체감 발달상태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뢰로운 구조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4개의 범주로 구성된 한 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응답자들의 청년기 정체감 발달상태를 분류한 측정방법과, 특히 회고적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문제시된다. 이런 점이 단기횡단적 연구의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탐색이며, 중년기 위기를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와 연결을 시켜봄으로써 발달의 다양성을 설명하려 했다는데 더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성인 발달과정을 상태중심(statuses-oriented)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중심(process-oriented)으로 보려고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인 상태, 취업 여부등 발달의 흐름과 별로 관련이 없는 상태적인 변인들이 주로 연구에 고려되었다. 이런 상태중심의 연구는 성인기의 어떤 시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들을 그 시기의 정체된 현상으로 이해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과정중심의 연구는 이전과 이후의 발달양상을 연결시켜봄으로써 성인기의 한 시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들을 연속된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김애순, 1990). 따라서 청년기 자아정체감과 중년기 위기와의 관계는 매우 흥미있는 주제로 앞으로 장기 종단적 연구방법에 의해 더 자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Levinson 등(1978)은 청년기에서 성인기를 지나는 동안 ‘성인초기’ ‘30대 초반’, ‘40대 초반’, ‘50대 초반’ 등 다양한 전환기를 가정하고 있다. 이들 전환기들은 성인기의 변화과정이 자아의 변형과정임을 감안할 때 그 핵심에 정체감 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김애순, 1990). 그러나 각 전환기의 위기의 유형들은 그 시기의 발달과제나 특징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Baumeister 등(1985)은 정체감 위기를 정체감 결함(identity deficit)위기와 정체감 갈등(identity

conflict) 위기의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두 위기 모형은 개념상으로는 청년기의 정체감 위기나 중년기 위기와 매우 유사한데 여기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을 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애순(1990). 성인기 성격발달에 대한 이론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3(1), 74-88.
- 김애순(199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애순, 윤진(1991). 중년기 위기감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4(1), 73-88.
- 서봉연(1988). 한국청소년의 Identity Crises에 관한 분석적 연구. *심리학의 제문제*, 3, 129-160.
- 이춘재 등(1988). *청년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주일(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식 척도를 대상으로. 미출판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Allport, G.(1937).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umeister, R. F., Shapiro, J. P. & Tice, D. M. (1985). Two kinds of identity crisis. *Journal of Personality*, 53, 407-424.
- Costa, P. T., Jr., & McCrae, R. R. (1978). Objective personality assesment. In M. Storandt, I. C. Siegler, & M. F. Elias (Eds.), *The clinical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 Plenum.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0).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 personality as a key to same issues in adult and old age. In P. B. Baltes (Ed),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pp. 65-102)*. New York : Academic Press.
- Cytrynbaum, S., Blum, L., Patrick, R., Stein, J., Wadner, D., & Wilk, C. (1980). Mid life development : A personality and social systems perspective. In L. W. Poon(Ed.), *Aging in the 1980s : Psychological Issues*.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s :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 Simon & Schuster.
- Jaques, E. (1965). Death and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502-514.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 Pantheon.
- Kimmel, D. C. (1980).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 Wiley.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L.,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men's life*. New York : Knopf.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Riegel, K. F. (1976). The dialectics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1



- (10), 689-700.
- Rosenberg, S. D., & Farrell, M. P. (1976). Identity and crisis in middle aged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2), 153-170.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ogers, C. R. (1963). Actualizing tendency in relation to motives and to consciousness. In M. R. Jones,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heehy, G. (1976). *Passages: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New York: Dutton.
- Snyder, M., & Gangestad, S. (1986) On the nature of self monitoring: Matters of assessment, matters of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25-139.
- Tesch, S. A., & Cameron, K. A. (1985). *Ego identity and openness to experience*. Unpublished manuscript, Rider College.
- Vaillant, G.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 Whitbourne, S. K. (1986a). *Adult development (2nd e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Whitbourne, S. K., (1986b). *The me I know: A study of adult identity*. New York: Springer-Verlag.

## The Mid-life Crisis(2) : the Mid-life Crisis according to the Retrospective Identity Status in Adolescence

Ae-So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in order to see the diversity of the mid-life crises along the line of developmental path, the level of mid-life crisis and the level of opennes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trospective identity status in adolescence. The respondents were 1391 mid-age adults(35-60, male ; 653, female ; 738). The results are as follows: Along the line of life-path, mid-life crises are more diverse. Those who had been in 'identity moratorium' or 'identity diffuse' in their adolescence experience more serious crisis compared with those who had been in the 'identity achievement' or 'foreclosed'. In the openness dimension, however, the identity achievement or moratorium group has higher points than the foreclosed or diffused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mid-life crisis is a function of openness and relationships in social systems.